

중세 유럽의 팽창과 십자군 전쟁

[11세기 유럽의 팽창]

- 이베리아 반도, 크리스티교 재정복 운동(Reconquista, 718 ~ 1492)
- 농업 생산성의 향상(삼포제 도입, 농업 기술의 발달)으로 인구 증가
- 독일인, 엘베 강 동쪽으로 식민 활동 전개

[십자군 전쟁(Crusades, 1096 ~ 1270)]

01. 배경

1) 표면적

-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 족의 압박
: 비잔티움 제국 위협, 비잔티움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의 구원 요청
: 시리아, ★예루살렘 점령(1071)으로 성지 순례 박해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재위 1088 ~ 1099)
: ★클레르몽 공의회(1095) 소집, 성지 회복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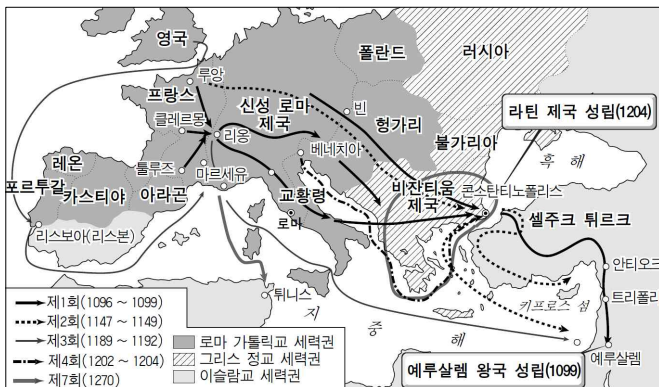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연설문◀

예루살렘, 안티오크 및 그 밖의 도시들에서 크리스티교도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튀르크 인의 진출은 그칠 줄을 모르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다가오고 있으니, **성지의 형제들을 구하자.** 그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빈궁해졌다. 예수의 성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겠는가?

2) 세속적

- 교황 → 로마 교회의 지배 영역 확대
- 왕·봉건 영주 → 새로운 영지 획득
- 상인 → 지중해 무역권의 장악

02. 전개



- 제1차 십자군(1096 ~ 1099)
: 성지 탈환, ★예루살렘 왕국 건설(1099)
- 제2차 십자군(1147 ~ 1149)
: 중도 회군
- 제3차 십자군(1189 ~ 1192)
: ★아이유브 왕조의 예루살렘 장악
: ★살라딘 對 리처드 1세(재위 1189 ~ 1199)
- 제4차 십자군(1202 ~ 1204)
: 베네치아 상인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라틴 제국 건설(1204)

03. 결과(★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 교황권의 약화 → 왕권 강화
- 제후, 기사 계급의 몰락 → 장원 경제 체제의 동요
- 동방 교역 활성화 → 북부 이탈리아 도시의 번영[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
-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 북서부 유럽 유입

중세 유럽의 경제적 변화

[상업 · 도시 발달]

01. 상업 발달

- 봉건제 정착,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 잉여 농산물 증가
- 자급자족적 장원 경제 탈피
 - ↳ 영주의 성곽, 교통의 요지 등에 시장 출현

02. 도시 발달

-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원거리 무역 발달
 - :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 성장
- 13세기 북부 유럽의 함부르크(Hamburg), 뤼베크(Lubeck) 등 도시 성장
 - : ★한자(Hansa) 동맹 결성(1241) → 도시 동맹, 자체의 법률, 군대 보유
- 네덜란드 플랑드르(Flandre) 지방의 상업 발달
- 교역권 성립



- (가) [_____] 교역권
 - : 북부 유럽의 함부르크, 뤼베크
 - :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지방
 - : 한자 동맹 결성(1241)
 - : 발트 해, 북해 연안의 무역 독점
- 내륙 교역권
 - : 지중해 교역권 ~ 북유럽 교역권 연결
 - : 대규모 정기 시장 형성 → ★상파뉴 정기시
- (나) [_____] 교역권
 - :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번영
 - :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

[중세 도시의 성격]

01. 초기 도시

- 봉건 영주의 간섭 → 도시민에 대한 행정 · 사법권,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행사

02. 자치 도시 성장

- 도시 시민들이 국왕과 제휴하여 영주에 대항
-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 : 도시법 제정, 시의회 구성, 재판 · 징세 · 예산권 행사
- ★자유 시민(Bourgeois) 성장
 - :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짐은 아브빌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특권을 승인했노라. 즉 짐은 …… 짐의 도시 아브빌이나 폰티 외 지방의 다른 도시들에서 그 도시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 도시들이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금이나 보조금 등 어떤 종류의 특별세도 시행하거나 강요하거나 물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행되거나 강요되거나 물리거나 부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1370년 아브빌 시 특허장

중세 유럽의 경제적 변화

[길드(guild)의 조직과 특징]

01. 성립

- 상인, 수공업자들의 경제 활동 공동체
- 공동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 생산과 판매 활동 규제
- 상인 길드
: 독점적인 상업 활동, 도시 행정 운영 장악
- 수공업자 길드
: 상인 길드에 대항해 결성, 도시 행정 참여
: 장인(master), 직인(journeyman), 견습공(apprentice)으로 구성



<장인 · 견습공>

02. 특징

- ★길드의 폐쇄성
↳ 자유로운 상공업 발달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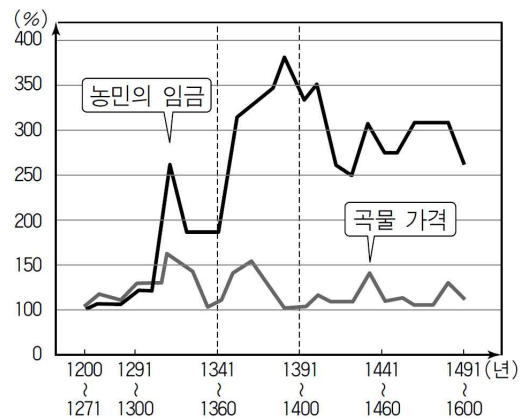
[장원의 해체]

01. 화폐 경제의 발달

- 지대 방식 변화
: 노동 지대 → 현물 · 화폐 지대
- 곡물 가격 상승
: 농노의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02. 농민의 처우 개선

- 농노의 부역 의무 탈피
- 14세기 중엽 흑사병 유행(유럽 인구의 1/3 감소)
: 흑사병의 경제학 → 농민의 임금 상승



<농민 임금과 곡물 가격(영국)>

03. 농민 반란

- 봉건 영주들의 농민에 대한 속박 강화
- 각지의 농민 반란 → 종교 개혁 운동과 연계
- ★자크리[Jacquerie, 자크(Jacques)의 집합명사]의 난(프랑스, 1358)
- ★와트 타일러의 난(영국, 1381)
: 농노제 폐지 주장, 성직자 존 볼(John Ball)의 후원



▶ 길드

① 중세 유럽에서 장인이 되려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견습비를 내고 스승의 집에 기거하면서 기술을 습득하였다. 3년에서 12년이 걸리는 **견습 기간**이 끝나면 **직인**으로서 장인의 곁을 떠날 수 있으며 임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인이 **장인**으로 독립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게와 원료를 구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였고 견습공을 돌봐 줄 아내를 얻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작품’을 제출하여 시험에 통과해야만 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격을 습득한 장인은 길드에 가입하여 영업을 독점할 수 있었다.

② “본 회원은 아침 해뜰 녘부터 저녁에 교회의 만종이 울릴 때까지 일하며, 그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 …… 즉, 회원은 밤에 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다. 1차 위반 시에는 40펜스, 2차 위반 시에는 …… 시민이 아닌 자는 박차 작업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 회원은 누구든지 도제를 7년 이상 고용해야한다. …… 어느 누구도 계약 기간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직인을 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런던 박차(승마용 구두에 부착하는 쇠)공 길드의 규약

▶ 외트 타일러의 난(1381)

- 모든 사람은 부역과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사람의 농노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잉글랜드 왕국 내 모든 주·시·정기 시장 등에서 매매의 자유를 부여해야한다.
- 농노 보유자·영주 직영지는 1에이커 당 4펜스의 지대를 내고 경작할 수 있다. 또 전부터 그 이하의 지대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그 액수를 올려서는 안 된다.

① 14세기에 영국의 영주들이 화폐 지대를 취소하고 부역제를 부활시키려고 하자, 농민들은 **외트 타일러**를 지도자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농민군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성직자 존 볼**은 영주·농노라는 신분 차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여 농노제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반란에 가담한 농민들이 더욱 많아져 그 수가 거의 1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② 반란의 직접 원인은 대(對)프랑스 전쟁(**백년 전쟁, 1337 ~ 1453**)의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15세 이상의 전 주민에게 부과한 인두세에 대한 불만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중세 봉건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원인이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농촌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영주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크게 진전되어 온 농노 해방 과정을 중지시키고, 차지인들에게 옛날의 무거운 노동 부역을 다시 부과하려 하였다. 자유 임금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을 틈타 임금 상승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에 탄압적으로 대응하여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동결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크리스트교의 변화

[중세 후기 크리스트교의 변화]

01. 교황권의 쇠퇴

1) 배경

-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종교적 열기 약화
- 교회 내부의 부패 + 봉건 질서 동요 → 왕권 신장

2) ★아비뇽 유수(1309 ~ 1377)

-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對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 필리프 4세(재위 1285 ~ 1314)
: 삼부회 소집(1302) → 성직자에 대한 과세 승인
- 교황 클레멘스 5세, 교황청의 아비뇽 이동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끌려가는 교황>

3)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 ~ 1417)

- 교황청이 로마로 귀환 → 로마,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서로 정통성 주장
- 피사 공의회 개최(1409) → 새로운 교황(알렉산드르 5세) 선출, 3명의 교황이 동시 재위

02. 교회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운동

1) 영국의 ★위클리프(1320 ~ 1384)

-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의 타락 비판
- 성서 기반 신앙, ‘성서에 교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
- 인간과 신의 직접적 관계 강조

2) 보헤미아의 ★후스(1372 ~ 1415)

- 성직 매매 등 교회의 세속화 공격
- 성서 지상주의·예정설(→ 칼뱅 계승)
- 보헤미아의 독립 운동, 농민 운동에 영향
- 종교 개혁의 선구적 역할



<회영 당기는 후스>

03. ★콘스탄츠 공의회(1414 ~ 1418)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재위 1411 ~ 1437) 제안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
- 교회의 대분열 수습
: 위클리프 이단 규정 + 후스 화형, 교회의 개혁 움직임 저지
: 단일 교황(마르티노 5세)을 선출하여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시기	구분	내용
4C	포교	① 313년 , 밀라노 칙령 → 크리스트교 공인 ② 325년 , 니케아 공의회 → 아타나시우스파 승인 ③ 392년 , 크리스트교의 국교화 → 테오도시우스 황제
5C ~ 10C	왕권과 제휴	① 496년 , 클로비스의 개종(아리우스파 → 아타나시우스파) ② 726년 , 비잔티움의 황제 레오 3세 → 성상 숭배 금지령 ③ 756년 , 피핀의 라벤나 지방 기증 → 교황령의 시초 ④ 800년 , 카롤루스 대제 → 서로마 황제의 대관 ⑤ 962년 , 오토 대제 →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
11C	분열 · 왕권과의 대립	① 1054년 , 동서 교회의 분열 ② 1075년 ,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령 ③ 1077년 , 카노사의 굴욕 : 주교 서임권 문제 → 그레고리우스 7세 對 하인리히 4세
11C 말 ~ 13C	교황권의 확대	① 1095년 ,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몽 공의회 소집 ② 1096년 , 십자군 전쟁 시작(~ 1270년까지 7차례) ③ 1122년 , 보름스 화약 → 교속 서임권 투쟁 일단락 ④ 1198년 ,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재위 1198 ~ 1216) :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 교황권의 전성기 : 제4차 십자군 전쟁(1202 ~ 1204) : 존 왕 파면(1209)
14C ~ 16C	교황권의 쇠퇴	① 십자군 전쟁(1096 ~ 1270) 실패 ② 아비뇽 유수(1309 ~ 1377)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③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 ~ 1417) :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귀환 ↳ 로마,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된 교황의 대립 ④ 후스(1370 ~ 1415), 종교 개혁의 선구 ⑤ 콘스탄츠공의회(1414 ~ 1418) : 교회 대분열 수습 →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 위클리프 이단 규정, 후스 처형 ⑥ 종교 개혁(1517) :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서(1075)>

9. 군주들은 오직 교황에게만 그 발에 입 맞춘다.
 11. 교황직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12. 교황은 황제를 파문할 권리를 가진다.
 19. 어느 누구도 교황을 재판할 수 없다.

중세 유럽의 정치적 변환

01. 왕권의 강화

1) 배경

- 교황권의 쇠퇴
- 봉건 영주 및 기사 세력 약화
- 도시 상공업자들의 협조
- : 국가 재정 지원, 국왕의 관리로 봉사, ★신분제 의회 참여

2) 내용

- ★관료제 · 상비군 도입(→ 필요 재원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세금으로 충당)
- 사법권, 과세권 확대

02. 영국의 발전(왕권 강화 + 의회 정치 발전)

1) ★노르만 왕조(1066 ~ 1153)

- 강력한 왕권 유지

2) 플랜태저넷 왕조(1154 ~ 1399)

- 앙주 백작 헨리 2세 개창 → 리처드 1세(재위 1189 ~ 1199)의 왕위 계승
- 존 왕(1199 ~ 1216)의 실정
- : 무거운 세금 부과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
- : ★대헌장(Magna Carta, 1215) 승인 → 성직자, 귀족의 특권 보장 → 후에 모든 국민으로 확대

▶영국의 대헌장◀

제1조 잉글랜드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권리를 완전히 보유하며, 그 자유를 침범당하는 일이 없음을 …… 짐과 짐의 후계자들을 위해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바이다.

제12조 군역 면제금과 보조금은 짐의 왕국 전체의 자문에 의하지 않고는 …… 짐의 왕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제39조 모든 자유인은 자신과 같은 신분의 사람에 의한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박탈·추방되는 등 어떤 식으로도 해를 입지 않는다.

- 헨리 3세(재위 1216 ~ 1272)
- : 존 왕의 아들, 대헌장의 원리 무시
- : 시몽 드 몽포르의 반발 → 귀족과 성직자 및 시민의 대표 소집, ★시몽 드 몽포르 의회(1265)
- 에드워드 1세(재위 1272 ~ 1307)
- : ★모범 의회 소집(1295) → 신분제 의회의 기틀 마련
- 에드워드 3세(재위 1327 ~ 1377)
- : 카페(Capetian) 왕조 혈통[에드워드 2세(父) ~ 프랑스의 이자벨라(母)]
- ↳ 프랑스 왕위에 대한 주장 재개로 ★백년 전쟁(1337 ~ 1453) 시작
- : 귀족원(성직자·귀족), 서민원(기사·시민 대표) 형성 → ★양원제 의회 확립(1341)

중세 유럽의 정치적 변환

03. 프랑스의 발전

- ★카페 왕조(987 ~ 1328) : 전형적인 봉건 정치 체제, 초기 왕권 미약
- 루이 6세(1108 ~ 1137) : 파리 귀족과의 교전을 통해 왕권 신장
- ★필리프 2세(1180 ~ 1223) : 존엄 왕(Augustus), 존 왕(英)과 싸워 승리, 제4차 십자군 전쟁 주도
- ★필리프 4세(1285 ~ 1314) : 교황과 맞서 삼부회 소집(1302), 아비뇽 유수와 교황 통제

04.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

1) ★백년 전쟁(1337 ~ 1453)

- 영국 對 프랑스 → 플랑드르 지방의 확보, 프랑스 내 영국령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
-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 프랑스의 왕위 계승 주장[1328(샤를 4세의 죽음) · 1337]
- 초기 영국 우세 → ★잔 다르크의 활약(오를레앙 전투, 1429) → 프랑스 승리
- 프랑스 → 통일된 영토 확보, 국민 의식 고양,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2) ★장미 전쟁(1455 ~ 1485)

- 영국 내의 왕위 계승 문제
- 랭커스터 왕가(흑장미) 對 요크 왕가(백장미) → 요크 왕가 승리, 에드워드 4세 즉위
- ★튜더 왕조 개창(1485 ~ 1603)
 - : 헨리 튜더(랭커스터 왕가)와 엘리자베스(요크 왕가)의 혼인
 - : 헨리 7세(재위 1485 ~ 1509) → 귀족 세력의 몰락 이용, 절대주의의 기초 마련

05. 독일 지역

- 신성 로마 제국(962 ~ 1806)의 황제가 명목상 통치자
- 봉건 제후 세력 강성
 - : ★대공위 시대(1256 ~ 1273) → 독립적 공령들의 집합체
 - : ★황금문서(1356) → 7선제후(7명의 유력한 제후, Domini Terrae)의 황제 선출 권한 인정



▶ 황금문서(Goldene Bulle) ◀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7명의 선제후가 선거로 뽑는다.
- 선거에 참여하는 선제후들은 재판권, 광산 채굴, 화폐 주조, 관세 징수 등의 특권을 가진다.
- 제후의 영지는 만아들에게 일괄상속하고, 영지에 대한 제후의 지배권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재위 1347 ~ 1378)가 발표한 제국법이다.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여 금인칙서(金印勅書)라고도 한다. 7선제후가 황제 선거권을 독점하여 제국의 실권이 지방 세력의 수중에 넘어가 독일 지역의 분열을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앙집권 · 왕권 강화에 역행)

중세 유럽의 정치적 변화

06. 이탈리아 반도

- 교황령, 도시 국가(베네치아·피렌체), 왕국(나폴리) 등으로 분열
- 신성 로마 제국 황제 對 로마 교황 → 통일 국가 형성 지연

07. 에스파냐

- ★레콘키스타(Reconquista, 718 ~ 1492)
- 12세기 아라곤, 카스티야 등 강력한 크리스티교 국가 건설
- 에스파냐 왕국 성립
- : 아라곤의 페르디난드와 카스티야의 이사벨 결혼[세기의 결혼식, 1479]
- : 이슬람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 함락 → 통일 국가 완성(1492)

08. 포르투갈

- 카스티야로부터 독립(1143)
- 해외 진출 확대와 ★인도 항로 개척(1498)
-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주역

09. 러시아

- 9 ~ 13세기 키예프 공국(日 公國)
- : 동슬라브족 지배, 그리스 정교 수용
- : 키릴 문자 사용,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건설
- 13세기 주치 울루스(킵차크한국)의 지배



<성 바실리 성당>

- 모스크바 대공국(Moskovskoye Velikoye Knazhestvo)
 - 이반 3세(재위 1462 ~ 1505)
 - : 몽골 축출(1480)
 - : 비잔티움 황제의 계승자 자처(→ 쌍두 독수리 문양)
 - : 모스크바[그리스 정교의 중심지, '제3의 로마']
 - 이반 4세(= 번개 왕, 재위 1533 ~ 1547 · 1547 ~ 1584)
 - : 차르(tsar) 칭호 사용(1547)
 - : 귀족 숙청으로 전제 정치의 기틀 마련
 - : 성 바실리 성당 축조[비잔티움 양식, 몽골족 격퇴 기념, 1561]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영토 변화>

10. 폴란드

- 14세기 말 폴란드 + 리투아니아 대공국 → 폴란드 왕국 형성

개념 Check

- ①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 ()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였다.
- ② 중세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를 조직하였다.
- ③ 영국의 ()와 보헤미아의 후스 등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성서에 기초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 ④ 플랑드르 지방과 프랑스 안의 영국령에 대한 지배권 문제 등으로 () 전쟁이 일어났다.
- ⑤ 독일에서는 1356년에 ()가 만들어져 7명의 유력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게 되었다.

실전문제

01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그레고리우스 7세시여, 당신은 세속 권력에 맞서 교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신 진정한 사도입니다.

특히 서임권 문제로 당신께 도전한 (가)의 황제를 파문하신 일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 ① 황금문서를 공포하였다.
- ②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성상 파괴령을 반포하였다.
- ④ 둠즈데이 북을 작성하였다.
- 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03

밀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16-수능]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초기 프랑스에서는 흑사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삶이 황폐해졌고 게다가 국왕이 영국군에 포로로 잡히면서 전세는 프랑스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의 후반기에 등장한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 프랑스는 영국을 물리칠 수 있었다.

- ① 대헌장이 발표되었다.
- ② 심사법이 제정되었다.
- ③ 수장법이 반포되었다.
- ④ 카페 왕조가 개창되었다.
- ⑤ 자크리의 난이 일어났다.

02

밀줄 친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9월 모의평가]

마침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교황께서 다스리시는 국가를 건설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고드프루아를 국왕에 추대하여 여기에 강력한 왕국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어찌 우르바누스 2세의 뜻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국왕이 되겠습니까?



- ① 로올라가 예수회를 설립한 배경을 검토한다.
- ② 피핀이 교황에게 토지를 기증한 목적을 살펴본다.
- ③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④ 위기에 처한 비잔티움 제국의 대응 방안을 조사한다.
- 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개칭된 이유를 찾아본다.



시대	시대 특징	
	정치·경제	사회·문화
프랑크 왕국	1. 게르만 이동 : 훈족의 압박(因), 서로마 멸망(果) 2. 프랑크 왕국 ① 클로비스 : 아타나시우스파 개종(496)★ ② 카롤루스 마르텔 : 투르·푸아티에 전투(732)★ ③ 피핀 : 카롤루스 왕조 개창(751), 라벤나 기증★ ④ 카롤루스 대제 : 서로마 황제 대관(800)★ 3. 프랑크 왕국의 분열 ① 베르딩 조약(843), 메이르선 조약(870) ② 동프랑크(오토 1세), 신성로마제국 대관(962)	1. 원시 게르만 사회 : 카이사르 『갈리아전기』 : 토지 공유, 공동 경작, 종사(從士) 제도 2. 카롤루스 르네상스★ ① 라틴 문화 진흥 ② 궁정 학교 설립 ③ 학자 우대 정책(엘퀸) ④ 로마 문화 + 게르만 문화 + 크리스티교 ↳ 서유럽 중세 문화의 기틀 마련
중세 봉건 사회	1. 봉건 사회 성립(9 ~ 10C) ① 프랑크 왕국 분열, 이민족의 침입 ② 로마의 은대지 제도 + 게르만의 종사 제도 : 쌍무적 계약 관계, 장원제도★ 2. 중세 교회의 발전 ① 프랑크 왕국 때 왕권과 밀착, 세속화 ② 수도원 운동(10C, 클뤼니 수도원 중심) ③ 성상 숭배 금지령(726) → 동서 교회 분(1054) ④ 카노사의 굴욕(1077) : 주교 서임권 분쟁★ ⑤ 보름스 협약(1122)★	① 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 ② 봉건적·귀족적 성격, 보편적 통일 문화★ ③ 교부 철학(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④ 스콜라 철학(신앙과 이성의 조화★)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1267) ⑤ 대학의 발달(학생·교수 조합으로 출발) ⑥ 고딕 양식(침탑, 스테인드글라스★) : 쾰른 성당, 노트르담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⑦ 기사도 문학★ : 『롤랑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비잔틴 제국	① 6C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 ② 황제 교황주의, 군관구제·둔전병제(7C)★ ③ 견직물 공업 발달, 동서 무역 번성 ④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십자군 전쟁의 배경★) ⑤ 오스만 튀르크에 멸망(신항로 개척의 배경)	① 콘스탄티노폴리스 중심 ② 『로마법 대전』(529)★ ③ 아야 소피아(Aya Sophia) 성당(537)★ ④ 그리스 정교, 그리스 어(공용어) ⑤ 르네상스 자극, 슬라브 문화권 형성★
중세 사회의 변화	1. 십자군 전쟁(1096 ~ 1270) ① 셀주크 튀르크의 성지 순례 박해[표면적] + 서유럽의 팽창[제(諸) 주체의 세속적 욕구] ② 1차(예루살렘 탈환, 예루살렘 왕국, 1099), 변질(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 라틴제국, 1204) 2. 상업·도시 발달, 길드 성립, 한자 동맹(1241), 지중해 교역권과 북유럽 교역권 형성★ 3. 화폐 경제 발달, 지대 변화, 흑사병 유행(14C 중엽 이후, 농촌 인구 감소) : 흑사병의 경제학, 농민 처우 개선, 농민 반란[자크리의 난(1358★), 와트 타일러의 난(1381)] 4. 교황권 실추★ ① 아비뇽 유수[필리프 4세 對 보니파키우스 8세, 성직자 과세 문제, 1309 ~ 1377★] ② 교회의 대분열[세 명의 교황 난립, 1378 ~ 1417] ③ 위클리프(영국), 후스(보헤미아)의 개혁 운동[성서지상주의·예정설 → 칼뱅(1509 ~ 1564) 계승] ④ 콘스탄츠 공의회[후스 처형,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교회 대분열 수습), 1414 ~ 1418] 5. 왕권 강화 ① 영국 : 존 왕의 대헌장 승인(1215), 모범 의회(1295), 양원제 의회 성립(1341) ② 프랑스 : 필리프 4세, 삼부회 소집(1302) ③ 백년 전쟁[영 對 프, 플랑드르 영유권과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 잔 다르크, 1337 ~ 1453] ④ 장미 전쟁[영국 내 왕위 계승 문제★, 1455 ~ 1485]	